

꿀벌이 주는 최고의 선물

超藥 - 초약 프로폴리스

-지난호에 이어서-

◆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보장하는 10가지 작용

7. 혈관 강화 · 혈행 개선 작용

고혈압과 뇌혈관 장해, 심질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동맥경화가 있다. 지금까지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질이 동맥 내부세포벽에 부착됨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LDL(저밀도 '리포' 단백질)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모으는 악질 콜레스테롤이라 불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은 바로 산화력이 극히 강한 산소분자인 활성산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그 성질이 변한 LDL이 대형 백혈구인 마크로퍼지에 흡수되어, 포말 세포라는 것을 만들어 동맥 속에 축적되는 것이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메카니즘이었다. 프로폴리스는 그 항산화 작용에 의하여 활성산소에 대항하며,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세포활성화 작용에 의하여 혈관자체를 부드럽고 튼튼하게 해준다. 그런데 건강유지를 위해서 매일 소량의 프로폴리스를 복용해오던 중, 거미막하출혈(뇌 표면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 막 아래의 공간에 흘러드는것)의 발작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탈이 없었으나, 그 사람을 치료하고 각종 검사를 한 의사는 "이 상태라면 이미 3년 전에 치명적인 큰 발작을 일으켰어도 이 상할 것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도 이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는 자각증상이 있었다는데, 아마도 프로폴리스를 복용했었기 때문에 약해졌던 혈관이 강화되어, 3년 동안이나 발작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닌가 했다. 그리고 그 후 순조롭게 회복되어 사회 복귀를 한 그 사람은 현재는 뇌출혈이 있은 후에 오는 후유증도 없이, "프로폴리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하며 건강한 생활을 되찾고 있다.

8. 살암 작용

프로폴리스 성분에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특히 그 성분은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하는 때에만 작용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활발한 증식을 되풀이하는 암세포에 대해서만 커다란 데미지를 주고, 다른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암의 치료법의 한 예로써, 면역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몸에 원래 있는 면역력을 높이고, 환자 자신의 저항력에 의해서 암과 싸우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기술에 의해서 '인터페론'·'모노그로날 항체'(암세포만을 직접 공격하는 '미사일' 요법에 쓰이는 것), TNF(종양괴사인자=腫瘍壞死因子)와 같은 BRM(생물학적 응답 조절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암에 걸린 사람에게 투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물질의 투여에 의한 면역요법은 특히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와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암을 죽이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로폴리스가 암세포의 발육을 저지한다고 하는 것은 면역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BRM과 동등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 항암제의 부작용 경감 작용

항암제로는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장애를 주는 타입과 몸의 면역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항암 효과를 만들어내는 BRM이 있다. 그러나 모두 강력한 작용을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많다는 결점이 있다. 더구나 항암제를 사용한 화학요법에서는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항암제가 일으키는 부작용도 상승적인 것이 되고,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생활의 질 ; QOL)에 심각한 그림자를 던지게 된다.

항암제와 병용하여 프로폴리스를 복용했더니, 당연히 일어나던 부작용이 가벼웠다던가, 혹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체험담이 있다. 오히려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서 이런 체험담이 있다. 오히려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항암제의 작용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 경감작용은 프로폴리스가 가지는 진통작용과 세포활성화 작용, 조혈작용, 그리고 이 밖의 많은 작용이 종합적으로 일어나, 전신 상태를 개선했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10. 유전자 손상을 막는 작용

유전자의 손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손상을 받은 유전자는 정상적인 형태와는 다른 세포와 단백질을 놓고, 이것들은 우리들의 건강을 적지 않게 위협하는 존재로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악성인 암을 비롯한 종양이다.

악성인 암과 종양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계기는 모든 세포의 핵에 있는 유전자 DNA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양성인 종양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만, 악성의 도수 높은 암세포는 이런 상처가 겹치는 몇 단계의 악성화 과정을 이미 경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담배, 식품 첨가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과 활성산소, 방사선과 환경오염의 영향과 약해, 스트레스 등으로, 모두 이 유전자에 상처를 입히는 작용을 가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유전자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가 세포의 분열과 더불어 증폭되게 되면, 암으로의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프로폴리스는 활성산소 등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세포를 활성화, 강화하여 이러한 물질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작용에 의하여 "프로폴리스를 복용하였더니, 암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하는 체험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으로서도, 프로폴리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체험이 증명하는 폭넓은 효과

1. 항암 효과만이 아닌 프로폴리스

이상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의의가 큰 데다, 폭넓은 작용을 하고 있는 프로폴리스인데, 실제적인 질병과 관련해서 볼 때, 그 효과는 어떤 것일까. 현재까지 출판된 많은 책이 프로폴리스의 항암 효과를 커다란 '테마'로 해왔다. 프로폴리스 연구를 하고 있는 의학자, 약학자들의 흥미도 대부분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초기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암은 지난 날처럼 불치의 병이라고는 하지 않게 되었지만, 암은 여전히 일본인의 사망원인 제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병이다. 현대 의학계의 최대 과제가 암 정복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에 대한 흥미가 항암 효과에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 글을 읽어온 분이라면, 프로폴리스가 암에만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로폴리스에는 다종다양한 작용이 있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상적으로 괴롭히는 굉장히 폭넓은 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도 될 듯 싶다. 실제로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보았다는 병은 암과 종양,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 난치병에서부터 감기, 무좀, 습진 등의 극히 일반적인 증상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현대 의학으로서도 원인을 알 수 없어,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못하고 대증요법만을 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이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즉효성이 커다란 장점

프로폴리스의 특징으로 한방약과 그 밖의 건강식품에서는 볼 수 없는 '즉효성'이 있다고 한다. 통증과 부기, 열 등의 증상과 감기 등의 비롯한 병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많은 체험담에서 나타난다. 만성적인 성인병 등에 대해서는 병세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하여 복용하고 있는 종에 확실히 체질이 개선되고, 착실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얘기도 많다. 예를 들면 프로폴리스를 계속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매월 정기검진을 받으면, 그 검사 결과 병이 극복되어 가는 단계를 어느 정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증상이 호전되어 약의 양을 줄이게 되며, 줄여도 몸의 '컨디션'은 점점 좋아져, 자연히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런 병을 프로폴리스가 개선하는 '메카니즘'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귀에 들려오는 "이런 병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체험담이 많은 것으로,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효과가 의학적(서양)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 치료와 개선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굳이 간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현대의 최첨단 의학이라 할지라도, 100%의 확률을 가지는 치료법으로 확립되어 있는 의료기술과 약품의 수는 결코

많지는 않을 것이다.

서양의학, 동양의학, 민간요법, 그리고 프로폴리스 같은 것을 막론하고, 병의 개선에 하나라도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의학, 약학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암을 비롯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치료현장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속에서도 프로폴리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조금 묘한 얘기 같지만, 병을 극복한 환자의 권유로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간호사를 많이 알고 있다. 간호사들이란 긴장 상태로 매일 일하는 직업인데,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게 된 후 씩씩하게 모든 일을 해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프로폴리스는 실제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꼭 복용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걸릴 수 있는 병의 발생을 억제하며, 또는 걸려도 가벼운 것으로 하여, 건강한 나날을 오래오래 유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런 병에는 프로폴리스를 권한다

1. 순환기계

순환기는 영양분과 산소 등을 신체 내 각처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심장을 비롯한 혈관과 임파절, 임파관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순환기계의 병인 경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을 비롯한 각종 심장병과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저혈압증 등의 병과 상피병 등, 임파계의 장해 등이 포함된다.

나에게 보내 오는 체험담에 의하면, 프로폴리스는 동맥경화증, 각종 심장병, 고혈압증, 또는 해리성 대동맥 등 순환기계통의 많은 질병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병세가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동안에도 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프로폴리스의 특징이다. 예를들면 고혈압증인 사람은 두통, 빠른해진 어깨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프로폴리스를 복용한 후로는 우선 고민하던 두통이 없어졌다던가,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실제로 혈압을 재어보면, 내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적이었던 증상에서 해방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소위 혈압 강하제라는 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계속적으로 복용할 각오가 필요하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서 병 증상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혈압강하제의 양을 서서히 줄여가며, 끝내 의사로부터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

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도 있다.

2. 호흡기계 · 이비인후계

호흡기계의 질환으로는 소위 감기, 인플루엔자, 만성 및 급성 기관지염과 폐렴, 폐결핵, 폐기종증 등이 있다. 어린이에게 많은 기관지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호흡기에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그룹'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병들은 프로폴리스의 살균, 항균 작용에 의하여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프로폴리스는 조속한 치료에 공헌할 것이다.

한편, 이비인후계 질환은 비염, 인두염, 부비공염, 중이염, 외이염 등의 염증이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프로폴리스의 항염증 작용에 의한 효과가 기대된다. 197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회 국제양봉회의에서 한 체코슬로바키아 이비인후과 의사가 프로폴리스는 외이염, 중이염, 궤양성 구내염, 편도염, 만성 인두염, 만성 비염 등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일본에서는 두 차례의 수술을 했어도 완치되지 않은 축농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던 어린이의 증상이 완치되었다던가, 편도선이 부었을 때 프로폴리스의 약한 용액으로 양자질을 했더니, 즉시 열이 내렸다고 하는 체험담 등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3. 소화기계

넓은 의미에서 소화 ·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입 안으로부터 인후, 위장, 항문까지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일어나는 질환도 한마디로는 모두 말할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은데,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증상은 역시 염증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체험담에 의하면, 프로폴리스는 구내염과 설염, 치주염, 위염, 십이지장염, 위장의 궤양, 각종 대장염 등에 효과가 있었던 것 외에 입냄새를 없애고, 치통이 멎추었다던지, 간접적으로 소화에 관한 장기의 병-간염, 간경변, 담낭염 등-에도 효과가 있었다 한다.

이들 중에서 구내염 증상은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실제로 느끼게 해준다. 통증이 심한 데다 완치가 매우 어려운 구내염이지만, 프로폴리스 액을 바르면, 민감한 사람이면 그야말로 놀랄 정도로, 환부에 막이 덮힌 듯한 상태가 되고,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진다. 또한 위와 장에 생긴 '풀립'에 관해서도 많은 체험 예가 있으며, 그 대부분은 프로폴리스를 대량으로 계속 복용함으로써, 약 1개월 후에는 '풀립'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